

전남대·엠코, 반도체 패키징 공동연구소 출범

‘5극3특’ 국토 전략 구현…권역별 전략산업 현장 모델
이진안 엠코 대표에 명예공학박사 수여·융봉포럼 개최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5극3특’ 국토 전략에 발맞춰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전남대는 교내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공식화했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가 12일 광주 첨단캠퍼스에 문을 연다.

이 연구소는 고성능·고집적 반도체 시대의 핵심 분야인 패키징 기술을 중심으로 실증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협력 거점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

량과 글로벌 기업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즉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공동연구소는 자동차·AI반도체 패키징 기술,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등 국가 전략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학부·대학원·기업 연구소 간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형 고급 인재 양성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5극3특’ 국토 전략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대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산학협력은 이미 정책 현장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와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에서 양 기관의 협력 사례는 전국 대학이 참고할 만한 우수 산학협력 모델로 소개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연구·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인재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점이 높이 평가됐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위해 지난해 6월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육·연구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남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엠코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 협력을 진행했다.

한편 전남대는 공동연구소 현판식과 함께 이진안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 이사에게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다. 이는 산업 현장의 최고 책임자를 대학 학문 공동체로 공식 초청해, 기업과 대학이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을 위해 동반 협력하겠다는 산학협력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전남대 융봉홀에서 융봉포럼(기념강의)이 열려, 이진안 대표가 ‘AI 시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진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미래와 산업·대학 협력의 중요성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공동연구소는 거점 국립대와 글로벌 기업이 함께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연구·교육·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근태 전남대학교 총장(왼쪽)과 이진안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가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공식화했다.

전남농기원, 갈색거저리 사육 ‘표준화 기술’ 확보
산업곤충 시장 성장 속 대량생산·품질 균일화 기반 마련

산업곤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남이 갈색거저리 사육 표준화 기술을 확보하며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산업곤충 가운데 수요가 많은 갈색거저리의 사육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화 모델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산업곤충 시장은 2015년 162억원에서 2024년 528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식품·사료·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곤충 사육능가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농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력 부담이 크고, 농가별 사육 방식 차이로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가 개발한 이번 기술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충이 선호하는 광원을 활용해 산란량을 늘리고, 생육 촉진에 효과적인 산소 공급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노숙 유충의 번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사육환경 개선 기술을 표준화한 것이 핵심이다.



갈색거저리 사육

전남농업기술원은 시범농가 운영과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통해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자동화 기술과 연계해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갈색거저리를 식품·사료·바이오소재 등으로 연계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곤충산업의 규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상아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연구사는 “사육환경 표준화는 곤충산업이 소규모 농가 중심 구조에서 산업 단계를 도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며 “대량생산과 품질 균일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주재로 ‘안전관리 강화 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농어촌공사, 안전관리체계 재설계 나선다

‘안전관리 강화 TF’ 출범…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재설계에 나섰다.

공사는 최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주재로 ‘안전관리 강화 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중대재해에 대한 전사적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안전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고, 이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이끄는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김인중 사장은 “안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며

“과거 사고에서 안전 체계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제도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와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산업재해 현황과 과거 공사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TF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발표 후에는 세부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공사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TF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TF가 공사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국민과 근로자가 안심하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알쏭달쏭 연말정산 ‘공제맨’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12개 사례별 제공
AI로 만든 4컷 만화·숏츠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상담 사례를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탄생한 공제맨은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의료비·월세·교육비 세액공제 등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는 12가지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공제맨 콘텐츠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4컷 만화, 국세청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분야 등에도 공제맨 콘텐츠를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친화 상담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26’ 보이는 ARS 접속 시 해당 자료의 연결 주소를 제공, 상담대기 시간 중 도움자료로 활용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 시 URL 문자 전송 및 첨부자료

(e-브러시)로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고용청, 동절기 안전점검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준수 지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겨울철 한랭질환을 비롯한 안전관리 위험요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섰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시청, 서구청 등과 합동으로 광주 서구 세하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서구자원회수센터’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작업 공정 중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됐다.

점검에서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노동청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게차 후미등 불량, 근로자 안전 통행로 미확보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지도했다. 아울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한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조정,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기능인재 선발 막 오른다…지방대회 참가 접수

12~23일…지역 대표 4월 선발

광주시와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는 지역 내 우수 기능인재 발굴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광주·전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광주시·전남도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기술 수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지역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행사다. 산업 현장과 직업교육 현장을 잇는 통로로 지역 기술 경쟁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포함한 다수의 입상 성과를 거두며 전국 상위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지역 기능인재를 꾸준히 발굴·육성해 온 성과로 분석된다.

올해 대회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광주지역 내 경기장에서 열린다. 기계·전기·자동차 등 전통 산업 직종은 물론

IT와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해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형 기술인재 발굴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순천, 여수, 나주 등 지역 내에서 분산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지역 내 소재 학교·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오는 8월 인천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와 전남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마이스터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주·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